

도광·함풍 연간에 조선 사신들이 만났던 청나라 문인들*

- 『한객시존』의 자료를 중심으로 -

김홍매**

- I. 서론
- II. 만청 시기 중국 문단의 상황
- III. 조선 사신들이 만났던 청나라 문인들
- IV. 결론

<국문초록>

청나라 도광(1821~1850)·함풍(1851~1861) 연間は 내우외환에 처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청나라 학계는 여전히 고증학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일부 문인들이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경세의 학문을 창도하였고 이는 조정의 지지와 문단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문단에서는 송시파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비슷한 시적 경향을 가진 동성과 문인들이 가세하여 송시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다.

본고에서는 청나라 학풍과 문단의 변화를 기반으로 이 시기에 조선 사신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했던 청나라 문인들의 인맥과 교류, 성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 조선 사신들과 교류했던 문인들은 일단 상당수가 진사 출신이어서 높은 문학적 수준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또 적지 않은 문인들이 아편전쟁 혹은 태평천국군과의 전쟁 등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

* 본 논문은 廣東省2019年度普通高校認定類科研項目「晚清宋詩風對朝鮮後期文學的影響研究」(2019WTSCX156)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중국 광둥외어의무대학 교 남국상학원 부교수

였으므로 상당한 우환 의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학 경향으로 본다면 송시파와 동성파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송시파에서는 고증학자이면서도 송시파의 핵심 인물들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장목(張穆, 1805~1849)을 중심으로 그의 학문적 경향과 시의 특징, 조선인과의 교류 등을 살펴보았다. 동성파에 대해서는 주기(朱琦, 1801~1861)를 중심으로 시가 창작 특징과 조선 문인들과의 교류를 살펴보았다. 이들의 학문적 경향과 시가 풍격은 조선의 문인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어: 도광(道光), 함풍(咸豐), 송시파(宋詩派), 동성파(桐城派), 『한객시존(韓客詩存)』, 장목(張穆), 주기(朱琦)

1. 서론

청나라 도광(1821~1850)·함풍(1851~1861) 연간은 태평천국운동으로 인한 국내의 위기와 아편전쟁으로 인한 외환 등으로 내우외환에 처했던 시기였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건가(乾嘉) 연간에 흥성했던 고증학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미 많은 문인과 학자들이 위기의식에서 출발하여 경세의 학문을 주장하고 있었다. 이 시기 조선의 사신들은 주로 선배 학자들이 개척해 놓은 인맥을 따라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류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시기와 장소에 따라 인원의 교체와 감소, 변화가 있었고 교류의 대상도 상당히 다양했다.

이 시기 한·중 문인들의 교류에 대한 연구는 이미 일정한 성과가 축적된 상태이지만 대부분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인맥의 추적, 특정 인물과의 교류 등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사실적 서술에만 머물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사실 조선 후기 한·중 교류의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교류의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또 그 작업을 위해서는 우선 조선 문인들과 교류했던 청나라 문인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고 청대 문학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대체적인 학술 주장과 문학 성향을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이런 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청나라 시풍의 대략적인 추이를 파악한 뒤에, 도광·합풍 연간에 조선인들과 교류했던 청나라 문인들을 그룹으로 나누어 그들의 인맥과 성향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인물의 창작 경향을 분석해 볼 것이다. 필자의 자료와 지면의 한계로 우선 『한객시존』에 실려 있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조선 사신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던 청나라 문인들을 1차적인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

II. 만청 시기 중국 문단의 상황

청대 시풍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귀납할 수 있다. 명말 청초의 문인 전겸익(錢謙益, 1582~1664)이 송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청대 송시풍이 흥기할 수 있는 서막을 열었고 이어 황중희(黃宗羲, 1610~1695) 등이 송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옹정 연간까지 영향을 미쳤다. 강희 10년(1671)에 오지진(吳之振, 1640~1717)이 『송시초(宋詩鈔)』를 휴대하고 북경에 들어간 일을 계기로, 송시풍이 점차 흥기하기 시작하였고 강희 20년(1681) 정도에 경사(京師)의 송시풍은 흥성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강희 중후기에는 송시풍의 여러 폐단이 드러나면서 점차 잦아들었고 ‘신운설(神韻說)’이 시단을 휩쓸었다.¹⁾

건륭 연간에는 주로 심덕잠(沈德潛, 1673~1769)의 격조설(格調說)을 위시한 당시파와 여악(厲鶚, 1692~1752)을 대표로 하는 절파(浙派)를 위시한 송시풍이 대립하였으며 건륭 중기에는 원매(袁枚, 1716~1798)를 대표로 한 성령설이 시단에서 굴기하였다. 원매는 당, 송을 구분하지 말 것을 주장하면서 당시파와 송시파 모두를 비판하였다. 동시기에 또 옹방강(翁方綱, 1733~1818)이 창도한 기리설(肌理說)도 위세를 떨쳤다. 원매가 사망한 뒤 성령설은 많은 비판에 직면하였으나 송시풍은 전승되어 영남(嶺南) 지방에서 송시풍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근대 송시파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요내(姚鼐)를 중심으로 하는 동성과 역시 송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²⁾

1) 王英志, 『清代唐宋詩之爭流變史』, 人民文學出版社, 2012, 227~228면.

도광, 함풍 연간에는 송시파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 대표적인 인물은 정은택(程恩澤, 1785~1837), 기준조(祁雋藻, 1793~1866), 하소기(何紹基, 1799~1893), 중국번(曾國藩, 1811~1872) 등이다.³⁾ 이 시기의 송시파는 ‘신운’, ‘격조’, ‘성령’의 폐단을 수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는데 비슷한 경향을 가진 동성파의 문인들이 가세하여 송시풍은 시단의 주류 경향이 되었다.⁴⁾

송시파의 대표적 인물 중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정은택은 고증학자인 능정감(凌廷堪, 1755~1809)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는데 능정감은 옹방강의 제자이다. 그러므로 그가 실천했던 송시풍 시가의 창작은 옹방강이 주도했던 송시풍과 직접적인 계승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옹방강은 당세와 사후에 “고거를 시로 삼는다(以考據爲詩)”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는 학문을 시에 응용한 그의 시풍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인 동시에 또한 비판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송시파의 작가들은 대부분 학문을 중시하였고 깊은 학문적 토대를 갖춘 경우가 많았다. 원원(阮元, 1764~1849)은 정은택이 “학문을 크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능정감에게서 배워서 시작한 것이다(公學之大, 啓於凌氏).”라고 평가하였다.⁵⁾ 이는 정은택의 사승 관계를 밝힌 동시에 그가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학자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은택은 기준조 등 문인들과 함께 시를 창화하면서 시를 논하였으며 가경 24년(1819)에는 선남시사(宣南詩社)에 가입하였다. 선남시사는 송시를 위주로 하였으며 구양수, 소식, 황정건 등에게 제사를 지냈다. 1834년에 선남시사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게 된 이후에도 정은택은 1836년에 다시 소식의 생일을 축하하는 모임을 열어 당시의 시단에 일정한 영향력을 미쳤다.⁶⁾ 송시파의 중요한 인물인 하소기와 정진(鄭珍, 1806~1864)은 정은택의

2) 위의 책, 469~470면.

3) 진연(陳衍, 1856~1937)은 『석유실시화(石遺室詩話)』에서 당시 정은택, 기준조, 하소기, 중국번 등이 송시를 즐겨 논했음을 지적하고 그들을 송시파로 언급하였다. 이춘희, 『道咸 연간의 대가 祁雋藻와 조선 문인 李尙迪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제57집, 215, pp 346면 참조.

4) 위의 책, 717면.

5) 阮元, 『誥授榮祿大夫戶部右侍郎兼管錢法堂事務春海程公墓志銘』, 程恩澤, 『程侍郎遺集』, 中華書局, 1985(周芳, 『道鹹年間的台閣詩人程恩澤和祁雋藻對詩壇的影響』, 산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2면에서 재인용).

6) 周芳, 위의 논문, 32면.

제자였으며, 다른 중요한 인물인 막우지(莫友芝, 1811~1871) 역시 정은택의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고 기준조 역시 정은택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로부터 만청 시기 송시풍은 옹방강 일파를 이은 것이며, 송시파는 정은택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군의 문인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시파 외에 시단에서 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이 동성파이다. 동성파는 송시파와 합쳐서 보지는 않지만 시학 주장에서 근접한 부분이 많고 시적 경향, 인물 교류 등에서 송시파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실질적으로 동성파를 창시한 요내(姚鼐, 1732~1815)가 옹방강(翁方綱, 1733~1818)과 적지 않은 교류가 있었고 시학 주장에서 상당히 비슷한 면모를 많이 보였다.⁷⁾ 초기의 동성파는 주로 고문 쪽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나 청대 후기로 갈수록 시학 쪽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동성파의 시학 주장은 송시파와 근접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뿐만 아니라 인맥이나 교류 면에서도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후기 송시파는 동성파의 영향을 받은 부분도 적지 않다.

우선 송시파의 대표적 작가인 기준조는 동성파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다. 기준조는 진용광(陳用光, 1768~1835)의 문생이자 사위인데 진용광은 요내의 조카이다. 진용광은 요내를 도와 『석포헌척독(惜抱軒尺牘)』을 정리하였으며 서신을 통해 시를 논하기도 하였다.⁸⁾ 가경 연간에서 도광 중엽까지 동성파 학설은 북경에서 진용광을 중심으로 전파되었다.⁹⁾ 진용광은 당, 송을 구분하지 않았고 어느 한 가지 경향에 경도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기준조가 동성파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 편이다.

정은택과 하소기는 동성파의 핵심 인물인 매증량(梅曾亮, 1786~1856)과 밀접하게 교류하였다. 매증량은 진용광과 더불어 북경에서 동성파의 학설을 전파한 핵심 인물이다.¹⁰⁾ 매증량은 중국번에 의해 ‘요문사걸(姚門四傑)’

7) 요내는 북경에 있을 때는 옹방강이 주도하는 모임에 여러 번 참여하였고 시를 논하는 서신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동성파의 시학 주장은 시와 문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 송시파와 비슷한 면이 있다.

8) 王英志 主編, 『清代唐宋詩之爭流變史』,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2년, 484면.

9) 王英志 主編, 앞의 책, 498~499면.

10) 청대 말기에 동성파는 네 개의 핵심을 형성하였는데 각각 가경(嘉慶)~도광(道光) 말년의 진용광을 중심으로 경성 지역에서, 도광 12년(1832)부터 17년(1837)까지 요영을 중심으로 강소, 안휘 지역에서, 도광 6년(1826)에서 15년(1835)까지 등정정을 중심으로 안휘 지역에서,

중의 한 명으로 불렸으며¹¹⁾ 리상(李詳)은 「동성파를 논하다(論桐城派)」라는 글에서 그를 도광 중엽 이후 동성파의 핵심 인물로 보았다. 리상은 매증량의 영향을 받은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도광 조에 매증량이 한유, 황정견을 배우고 소식을 참조로 할 것을 주장하자 황작자(黃爵滋), 공헌이(孔憲彝), 주기(朱琦), 중국번(曾國藩), 풍지기(馮志沂) 등이 모두 따랐다고 하였다.¹²⁾ 황작자, 공헌이, 주기, 풍기는 모두 『한객시존』에 나오는 인물들이며 가장 빈번하게 조선인들과 교류했던 문인들이다. 이로부터 만청 시기 한중 문인들의 교류가 동성파의 강력한 자장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II. 조선 사신들이 만났던 청나라 문인들

도광·함풍 연간에 조선 사신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했던 청나라 인물들의 정보를 『한객시존』에 작품에 수록되어 있는 것만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성명	생물년	교류 대상	작품 창작 시기	관련 정보
1	黃爵滋	1793~1853	洪顯周, 趙羽堂, 朴心田, 李尙迪, 趙斗淳, 李秋齋.	도광 12(1832)	자 德成, 호 樹齋. 도광 3년(1823) 진사.
2	朱琦	1801~1861	吳慶錫, 李尙迪, 安圭	함풍 6(1856), 함풍 7(1857)	자 伯韓. 도광 15년(1835) 진사. 함풍 11년 태평천국군이 항주를 함락시킬 때 성을 지키다가 사망.
3	張穆	1805~1849	金正喜, 李尙迪, 李時善	도광 26, 도광 27	자 誦風, 碩洲. 호 石州, 殷齋.

도광 12년(1832)부터 30년(1850)까지 매증량을 중심으로 경성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중에서 매증량이 있었던 경성 지역의 영향력이 가장 컸다고 한다. 王英志 主編, 앞의 책, 498~499면.

11) 曾國藩, 『歐陽生文集序』, 『曾國藩詩文集』, 上海古籍出版社, 2005, 285면.

12) 李詳, “餘謂自乾嘉以後, 詩學凡數變, 其間以惜抱先生源流最正……道光朝, 梅伯言倡學韓, 黃參以大蘇, 如黃樹齋, 孔繡山, 朱伯韓, 任子貞, 曾文正, 馮魯川, 孫琴西, 畢奉梅爲識志”, 『藥裏慵談』, 江蘇古籍出版社, 2000, 33면.

4	孔憲彝	1808~ 1863	李尙健, 吳慶錫, 李經修, 李尙迪	합풍 6	자 叔仲, 호 繡山. 공자의 72대 손. 도광 17년(1837) 거인. 동성 과의 고문 학습. 완원과도 밀접 한 관계. 魏源, 중국번, 하소기, 蘇廷魁, 嚴良訓, 彭蘊章 등과 시 문 토론.
5	吳昆田	1808~ 1882	吳慶錫, 李尙健,	합풍 9	자 雲圃, 호 稼軒. 도광 14년 (1834) 거인. 합풍 9년 김영작과 필담.
6	葉名禮	1811~ 1859	李尙迪, 吳慶錫, 李尙健, 李警修, 金永爵, 金有淵	도광 27, 합풍 5, 합풍 6, 합풍 7, 합풍 9	자 翰源, 潤臣. 도광 17년(1837) 거인
7	許宗衡	1811~ 1869	吳慶錫, 安圭	합풍 7, 합풍 8, 합풍 10, 합풍 11	자 海秋, 합풍 2년(1852) 진사
8	馮志沂	1814~ 1867	李尙迪, 吳慶錫, 安圭, 李容肅	합풍 9, 합풍 10, 합풍 11	자 魯川. 도광 16년(1836) 진사. 매증량의 문장 학습. 장목, 주기, 중국번, 양상문, 동문찬, 소의진 등과 자주 시를 수창하였음.
9	王拯	1815~ 1876	吳慶錫, 李尙迪,	합풍 8, 합풍 9, 합풍 10, 합풍 11	원명 錫振, 자 少鶴. 도광 21년 (1841) 진사. 주기와 한 고향 사 람. 相術로 유명.
10	黃雲鶴	1819~ 1898		합풍 11	자 芸穀, 翔雲, 緗芸. 합풍 3년 (1853) 진사. 張之洞과 밀접한 사이.
11	王軒	1822~ 1887	任友石, 吳慶錫, 安圭, 申錫愚, 徐衡淳, 趙蘭西	합풍 8, 합풍 11	자 海居, 호 顧齋. 동치 원년 (1862) 진사. 기준조가 그의 글 을 읽고 장목의 후계자가 있게 되었다고 찬탄. 동문환 형제가 그에게서 시를 배움.
12	李士葵	1821~ 1885	任荷漪	합풍 10	호 芋仙. 중국번의 막료로 오래 지냄.
13	沈秉成	1823~ 1895		합풍 11	자 仲復, 玉材. 호 聽蕉, 耦園主 人. 합풍 6년(1856) 진사.
14	董麟	1830~ 1881		합풍 11	자 祥甫, 호 雲舫. 동문환의 형. 풍지기에서 팔훈체를 배움.
15	董文煥	1833~ 1877	申錫愚, 徐衡淳, 趙蘭西	합풍 11	
16	江人鏡	1823~ 1900		합풍 11	자 雲彥, 호 蓉舫. 도광 29년 (1849) 거인

위의 도표를 살펴보면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진사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조선 사신들과 교류한 중국 문인들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 완원을 위주로 하는 고증학자, 기준조 등을 위주로 하는 송시파와 매증량을 위주로 하는 동성파들과 동시에 인맥을 맺고 있는 인물들이 적지 않아서 당시 송시파와 동성파가 서로 교차되고 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작자, 주기 등은 당시의 시대적 풍운에 깊이 휘말렸던 인물들이다. 황작자는 아편금지운동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고 주기는 태평천국군에 맞서 항주를 방어하다가 목숨을 잃었다. 또 장목은 고증학적 학풍을 경제적 학문과 결합시키려고 시도했던 인물로 보인다. 아래 장목과 주기를 예로 들어 송시파와 동성파 진영의 인물들의 성향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송시파 진영

위의 표에 있는 인물들 중 장목(張穆, 1805~1849)은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학가로 이름을 날리면서 송시파의 대표 작가들과 매우 긴밀하게 교류했고 또 일정한 정도로 북경의 학풍을 주도하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장목은 산서성(山西省) 평정(平定) 사람인데, 그의 셋째 형이 기준조의 누이동생과 혼인했기 때문에 기준조와는 인척이 된다. 장목은 기준조보다 12살 아래였는데 그가 기준조와 처음 만난 것은 27세 때였다. 기준조는 장목의 인물과 재주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했고 기준조가 과거시험장에 쫓지를 휴대하고 들어가려 했다는 혐의로 영구히 과거시험을 볼 수 없게 되자 평생 의식주 면에서 그를 후원하고 도움을 주었다.¹³⁾

장목은 1832년에 과거시험을 보기 위해 북경에 들어가서 하소기, 묘섭(苗燮) 등을 만나 함께 소학을 토론하고 저서를 썼다. 그해 그는 진용광의 집에서 고조우(顧祖禹)의 『독사방여기요(讀史方輿紀要)』를 교정하고 있던 유정섭(兪正燮)을 만나 교류하였다. 장목은 1836년까지 총 4년 동안 북경에 머물면서 정은택, 하소기 등과 교류하였다. 정은택은 장목의 부친의 제자였

13) 呂文利, 『1839年: 張穆學術人生轉折若幹問題』, 『清史研究』 2007年 2月 第1期, 77~79면.

고 기준조의 친구이기도 했는데 장목에 대해 매우 높게 평가했다. 정은택은 장목에게 부친의 원고 교정을 맡겼고 뒤에 정은택이 사망하자 장목은 정은택의 문집을 정리하여 간행하였다.¹⁴⁾ 1839년에 과거시험에서 부정 사건으로 응시 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한 뒤 장목은 다시 북경으로 가 사망할 때까지 10년 동안 그곳에서 지내면서 고염무의 사당을 세우고 『정림연보(亭林年譜)』와 『염잠구연보(閻潛邱年譜)』를 쓴 외에 『몽골유목기(蒙古遊牧記)』와 『위연창지형기(魏延昌地形記)』, 『아라사사보집(俄羅斯事補輯)』 등 학술 저서를 썼다.

장목이 조선의 문인들과 교류한 것은 주로 1839년 이후에 북경에 거주할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객시존』에는 장목이 조선 문인에게 써 준 시가 두 수 실려 있는데 시간은 각각 도광 25년(1845)과 도광 26년(1846)이다. 1845년에 만난 사람은 역관 문인인 이상적이다. 장목은 이상적이 지니고 온 김정희의 세한도(歲寒圖)에 시를 제하였다. 시의 앞부분은 김정희에 관한 것이고 뒷부분은 이상적과의 교류에 관한 것인데 앞부분만 인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昔從徐孺子 예전에 서씨 선비(徐鈞卿)에게서,
 獲聞阮堂名 완당의 이름을 들었네.
 畸士來樂浪 뛰어난 선비 악랑에서 오니,
 秘籍耀東瀛 비적(秘籍)이 바다 동쪽에서 빛났다지요.
 前編補玉鑒 전편에 빠졌던 『옥감』을 보충하여,
 盛業恢松庭 성대한 업적이 松庭에 널리 퍼졌지요.
 【주씨(朱世傑)의 『산학계몽』은 중국에서 사라진 지 오래 되었는데 완당이 조선에서 얻었다. 무술년 봄에 북경으로 와 서균경(徐鈞卿) 관찰사에게 주었다.(朱氏「算學啓蒙」, 中國久佚. 阮堂於其國得之. 戊戌春, 來京以贈徐鈞卿觀察)】
 阮堂所慕阮 완당이 흠모하는 완원이,
 見之喜且驚 놀라고 기뻐하였네.
 趣付劖劒氏 각수(劖手)에게 보내고,
 及門校算精 문하에게 정밀하게 교정을 보게 하였네.
 原秩珍弄處 원본을 소중하게 보관한 곳에,

14) 李奕菴, 『張穆交游及其書法研究』, 山西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15~16면.

選樓峙高麓 문선루 용마루가 우뚝하구나.

【의정 상공께서 주씨의 책을 얻으시고 나차구 군에게 교정을 하여 간행하게 하고 원본은 문선루에 보관하셨다.(儀徵相公得朱氏書，屬羅君次穆核算付梓，原本貯文選樓)】

老阮屋其下 완원 어르신께서 그 아래 기거하시며,

著述老愈成 만년에 저서가 더욱 이루어졌네.

耄勤古衛武 옛 위무공의 일을 밝히는 데 힘쓰고,

舊訓搜遺經 경전에서 옛 가르침을 찾았네.

【새 저술 『시서고훈』을 완성하셨다.(新著『詩書古訓』成)】

一函遠相貺 편지 한 통으로 멀리 부쳐 주시니,

俗耳乍罄輕 속된 귀가 번쩍 뜨였네.¹⁵⁾

이 시의 시작 부분은 그와 김정희의 인연에 대해 쓴 것이다. 시에 의하면 그가 김정희의 이름을 처음 들은 것은 서균경(徐鈞卿)한테서였다. 완원은 원대 주세걸(朱世傑)이 쓴 『산학계몽(算學啓蒙)』이 이미 중국에서 산일되어 볼 수 없는 것을 유감으로 여겼는데 김정희가 이 사실을 알고 조선에서 간행된 책을 찾아 중국의 지인들에게 선물하였다. 그들 중에는 당시 관찰사직에 있던 서균경도 있었다. 전편에 부족한 『옥감』을 보충하였다는 것은 완원이 『사고미수서제요(四庫未收書提要)』 「사원옥감삼권제요(四元玉鑑三卷提要)」에서 산일되었다고 기록했던 『산학계몽』을 김정희 덕분에 다시 간행하게 된 일을 말한 것이다.¹⁶⁾ 완원은 나사림(羅士琳, 1789~1853)에게 조선 간행본 『산학계몽』을 교정하게 하여 다시 판각한 뒤, 원본은 문선루(文選樓)에 보존하였다.¹⁷⁾ 시의 첫 부분은 바로 이 내용을 서술한 것이다.

이어 장목은 완원이 새로 지은 『시서고훈(詩書古訓)』을 자신에게 보내 온 일을 서술하였다. 시의 뒷부분에서는 또 이상적이 자신과 김정희의 인연을 알고 ‘세한도(歲寒圖)’에 시를 써달라고 청한 경위, 자신이 완원이 쓴 『시

15) 張穆, 「爲朝鮮項使李藕船尙迪，題其師金秋史正喜所畫歲寒圖，卽奉簡秋史慕中朝儀徵相公之學，故別署阮堂云」, 『한객시존』, 102면.

16) 김정희에 의해 『산학계몽』이 중국으로 전해진 경위는 김호, 「朝鮮刊本《新編算學啓蒙》의 中國 傳播와 影響」, 『중국문학연구』 58, 2015, 1~27면 참조. 선행연구와 해당 논문이 따르면 완원이 김정희가 준 『산학계몽』을 다시 간행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김정희 덕분에 조선 간행본 『산학계몽』이 중국의 학자들에게 알려진 것은 확실해 보인다.

17) 張穆, 「爲朝鮮貢使李藕船尙迪，題其師金秋史正喜所畫歲寒圖，卽奉簡秋史慕中朝儀徵相公之學，故別署阮堂云」, 『韓客詩存』, 102면.

서고훈』과 본인이 지은 『정림연보(亭林年譜)』를 이상적을 통해 김정희에게 증정했다는 것 등을 밝히고 있다.

장목은 시에서 완원에 대한 김정희의 존경, 두 사람의 문물교류 등에 대해서 많은 필목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신 역시 완원을 매우 흠모하였고 가깝게 교류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장목은 어려서 완원의 글을 읽고 그의 학문에 경도되었으며 1843년 9월에 처음 완원을 만났다. 완원은 장목을 만나 보고는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으며 직접 쓴 대련(對聯)을 증정하였다. 이후 두 사람은 계속하여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학술을 토론하였다.¹⁸⁾ 바로 이런 인연 때문에 그는 김정희에게 더욱 친근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또 김정희와 완원의 학술적 교류를 알고 있었기에 그를 학술적 교류의 상대로 인식하며 완원의 새로운 저서를 자신의 저서와 함께 보내주는 등 호의를 베풀 수 있었을 것이다.

『정림연보』는 장목이 하소기와 더불어 북경 자인사(慈仁寺)에 고염무 사당을 설립한 뒤 쓴 것이다. 고염무 사당의 설립의 계기가 된 것 중 하나는 가경(嘉慶) 연간에 완원이 국사관총찬을 맡아 『유림전』을 지으면서 고염무를 첫 자리에 놓은 것이다. 또 도광 21년(1841)에 고염무가 곤산(昆山) 향현사(鄉賢祠)에 배향된 것도 직접적인 계기의 하나가 되었다. 장목과 하소기는 도광 23년(1843)에 고염무의 사당을 설립하자고 주장하여 큰 호응을 얻었고, 1844년 2월 24일에 처음으로 고염무의 사당을 참배하기 시작하였다.¹⁹⁾ 장목이 이상적에게 『정림연보』를 준 것은 고염무의 사당 참배가 시작된 다음 해 1월 25일이다. 즉 고염무 사당 참배 활동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조선의 문인들에게 알려졌고 관련된 중요한 저술도 조선에 전해졌던 것이다.

5년 뒤 박규수(朴珪壽, 1807~1877)는 본인의 제1차 연행(1860)에서 중국 문인들을 만나 자신이 장목의 글을 읽었다고 언급하였고, 또 중국의 문인들과 함께 고염무의 사당을 참배하였다.²⁰⁾ 박규수는 『고사음복도에 제하다(題顧祠飲福圖)』에서 고염무의 사당은 하소기가 처음에 건립을 추진했다고

18) 李奕蓄, 『張穆交游及其書法研究』, 山西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16~17면.

19) 呂文利, 『1839年: 張穆學術人生轉折若幹問題』, 『清史研究』 2007年 2月 第1期, 80면.

20) 김명호, 『환제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411면.

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장목이 1849년에 사망한 뒤 고염무 사당에 배사(陪祀)되었으므로 박규수는 장목의 신위도 함께 참배했다.²¹⁾

두 번째 시는 이상적과의 인연으로 인해 김정희의 또 다른 제자인 이시선(李時善)을 만나고 써 준 전별시이다. 이 시에서도 조선의 문인들과 문학 활동에 대한 그의 꽤 깊이 있는 이해가 드러나는데 그는 자신이 이시선이 쓴 『몽성재명서(夢惺齋銘序)』를 읽었다고 했고 이시선이 옛것을 좋아하기를 목마른 듯이 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에서 자신의 대표적 학술 저서인 『몽골유목기(蒙古遊牧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시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김상헌(金尙憲, 1570~1652)의 시구를 이용하여 마무리를 하면서 이시가 『지북우담(池北偶談)』에 실려 있다고 출처를 언급하기까지 했다.

『한객시존』에는 장목이 조선 문인들에게 지어준 시가 두 수밖에 실려 있지 않지만 두 나라 문인들 사이의 학술교류의 양상을 매우 잘 보여준다. 고염무의 곤산 향현사 배향을 허락하는 예부(禮部)의 평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경세의 학문을 추구하였다”였다.²²⁾ 내우외환의 상황에서 장목, 하소기 등이 고염무의 사당을 설립한 것은 고염무의 경세치용의 학문 주장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였던 것이다. 장목이 김정희의 ‘세한도’에 시를 제한 것은 바로 고염무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기 시작한 다음해였다. 학술의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움직임과 관련 학술 성과는 큰 시간의 간극 없이 바로 조선으로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목 자신은 고증학적 학술 경향을 경세의 학문으로 응용하려는 뜻을 가졌고 실제로 그것을 실천한 작가였다. 고염무의 경세의식에 대한 존숭, 우환의식에서 출발한 변방 지리서의 편찬 등은 그의 이런 경향을 잘 보여준다. 그의 문학적, 학술적 경향은 조선의 문인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위에서 인용한 시의 작시 경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시는 전형적인 학자의 시의 면모를 보여준다. 자신이 김정희를 알게 된 경위, 김정희가 완원의 『연경실집』을 읽고 『산학계몽』이 중국에 없다는 것

21) 朴珪壽, 『癡齋集』 권11, 『題顧祠飲福圖』,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412~413 면에서 재인용. 시의 번역은 해당 책을 참조하였다.

22) 呂文利, 앞의 글, 79면 참조. 원문은 “已故江蘇崑山縣先儒顧炎武, 植躬清峻, 砥行端方, 講求經世之學”이다.

을 알고 찾아서 서균정에게 준 일과 완원이 『산학계몽』을 나사림에게 교정하게 하여 간행하고 원본은 소중하게 소장한 일, 완원이 노년에도 여전히 학문에 힘써 『시서고훈』을 저술한 일 등이 밀도 있게 기술되어 있다. 시에 자세한 주가 부기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학계몽』의 구체적인 상황, 김정희가 책을 구해서 중국에 보내준 경위 등을 알지 못한다면 시의 내용을 제대로 해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새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등 학술교류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는 송시파의 시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반면 송시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하소기는 조선의 문인들과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객시존』에는 그가 지은 시가 실려 있지 않다. 하지만 많은 조선 문인들이 고염무의 사당 참배에 대해 알고 있었고 실제로 참여하기도 했으므로 하소기의 이름은 조선 문인들에게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 또 조선 문인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하소기의 글씨가 명필이라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1855년에 서경순(徐慶淳, 1804~?)은 진위진향사(陳慰進香使)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북경에 갔을 때 하소기의 이름을 들었다. 그가 유리창에 가서 글씨를 구하면서 지금의 명가는 누구냐고 묻자 유리창 주인이 옹방강은 이미 작고하였고 하소기는 남주(南州)로 부임해 갔다고 대답하였다.²³⁾ 조선의 문인이나 중국의 지인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하소기의 이름은 쉽게 들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다.

역관 김석준(金奭準, 1831~1915)은 하소기의 글을 직접 보고 거기에 시를 제하기도 하였다. 시 제목은 『하소기 태사의 진적에 삼가 제하다(奉題何太史紹基眞蹟)』인데 다른 문인들과 함께 하소기의 진적을 감상하고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시는 중국에서 중국 문인들과의 모임 장소에서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시 내용은 다음과 같다.

顏學蘭亭何學顏 안진경은 왕희지 배우고 하태사는 안진경을 배웠으니

23) 徐慶淳, 『夢經堂日史』 編3, 12월 14일, “往見琉璃廠書畫鋪, 尋古畫古書. 鋪主曰, ‘漢唐以來書畫幾名家, 今無見存. 宋徽宗手畫尚有傳者, 此亦多贗本. 書法則周秦籀篆彝款碑刻, 可作寶玩. 漢以後筆家, 不啻千百分門. 則今之所求是何名家?’ 余曰, ‘今之名家誰也?’ 曰, ‘覃溪已故. 何紹基赴任南州去.’”

禿毫殘墨積如山 닳은 붓, 남은 먹 산처럼 쌓였네.
 千年上下車同軌 천년 동안 상하가 같은 길로 차를 몰았으니
 只在中鋒八法間 다만 중봉 8법에 그 비결이 있을 뿐.²⁴⁾

시에서 김석준은 안진경(顔眞卿)은 왕희지(王羲之)를 배우고 하소기는 안진경을 배웠다고 말했다. 왕희지 → 안진경 → 하소기로 이어지는 맥락에서 하소기의 글씨체에 대해 파악한 것이다. 이는 하소기의 이름이 조선의 문인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았으며 그들이 하소기의 필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2. 동성과 진영과 동조자들

앞에서 도광 조에 매증량이 한유, 황정건, 소식을 배울 것을 주장하여 북경에 있던 문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²⁵⁾ 매증량의 주장에 동조한 사람들 중에서 황작자, 공헌이, 주기, 풍지기 등은 모두 도광, 함풍 연간에 조선 문인들과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으며 『한객시존』에 이들이 조선 문인들과 주고받은 작품이 실려 있다.

우선 이들 중에서 황작자는 나이가 많을뿐더러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선의 문인들과 교류를 시작하였다. 그는 북경에 있는 동안 늘 북경의 문인들과 모임을 갖고 시를 논하였는데 이런 모임에 조선의 문인들 또한 열정적으로 초대하였으므로 당시 한·중 교류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²⁶⁾ 황작자는 1836년에 조선 문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서 1852년까지 조선 문인들과 만남을 가졌다. 또 조선 문인들과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학술에 관한 교류를 이어나갔다. 『한객시존』에 수록된 청나라 문인들 중 함풍 연간까지 조선인들과 만나 교류했던 인물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황작자와 직, 간접

24) 金奭準, 『韓客詩存』 卷四, <奉題何太史紹基眞蹟>, “顔學蘭亭何學顔, 禿毫殘墨積如山. 千年上下車同軌, 只在中鋒八法間.”(李預·崔永禧 輯校, 董文煥 編, 『韓客詩存』, 書目文獻出版社, 1996, 68면.)

25) 李詳, 앞의 글, 33면.

26) 황작자와 조선 문인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의 두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김홍매, 『만청 문인 황작자와 조선연행사』, 『국문학연구』 34, 2016, 249~268면; 임영길, 『청(淸) 문인 황작자(黃爵滋)와 조선(朝鮮) 문인의 교류 - 『선병서옥초집연기(仙屏書屋初集年記)』를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회연구』 64, 2016, 333~369면.

적인 관련이 있다.

우선 황작자 이후에 북경에서의 한·중 문인 교류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섭명풍(葉名澧, 1811~1859)이 바로 황작자의 제자였다. 물론 섭명풍은 옹방강(翁方綱)의 제자인 섭지선(葉志詵)의 둘째 아들로, 그와 조선인들의 교류는 옹방강으로부터 내려온 교류의 맥을 이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합풍 8년에 오경석, 이상건과 만났던 오곤전(吳昆田, 1808~1882)은 황작자가 발탁한 인재인 반덕여(潘德輿, 1785~1839)의 제자였다.²⁷⁾ 반덕여는 황작자보다 나이가 8세나 많지만 1828년에 황작자가 강남 시험관이었을 때 시험에 응시하여 거인이 되었다. 나중에 반덕여는 사회에서 황작자와 어울렸으며 황작자의 시집을 교정하고 서문을 쓰기도 하였다.²⁸⁾

황작자는 당·송 절충론자로 평가되지만 송시파의 핵심 작가인 기준조와도 교류가 있었다. 기준조는 황작자와 동갑인데 가경(嘉慶) 19년(1814) 진사이다. 기준조는 도광 19년(1839) 12월에 당시 병부시랑이었던 황작자와 함께 흠차대신의 신분으로 복건성으로 가서 해방(海防) 업무와 금연 문제를 시찰한 적이 있으며, 1841년에는 군기대신이 되었다. 기준조는 조선 문인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교류한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1859년 제자인 왕증이 공헌이가 주최한 모임에서 이상적에게 써 준 시를 읽은 것이 이상적과 교류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준조와 이상적이 처음 만난 것은 1837년이었으나 약 20년 뒤인 1858년부터 본격적인 교류를 하게 되었고 1863년의 변무사행 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까지 하였다고 한다.²⁹⁾

공헌이는 그 다음으로 비교적 활발하게 조선 문인을 초대하고 안정적인 모임의 장소를 제공한 인물 중 한 명이다.³⁰⁾ 공헌이는 어려서 이종전(李宗傳)에게서 동성파의 고문을 배웠다. 그는 한유를 특별히 숭상하여 자신의 서재를 ‘한재(韓齋)’라고 명명하였는데 한유는 동성파와 송시파에서 모두 숭상하는 인물이다. 한유와 황정견을 배우고 소식을 참조로 할 것에 대한

27) 임영길, 앞의 글, 340면.

28) 임영길, 앞의 글, 342면.

29) 이춘희, 『道咸 연간의 대가 祁寯藻와 조선 문인 李尙迪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57, 343~375면.

30) 공헌이와 조선 문인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김홍매·박향란, 『晚淸 문인 孔憲彝의 ‘韓齋’와 한중 문인들의 문화 교류—咸豐 7년의 모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73, 307~325면 참조.

매증량의 주장은 사실 동성파와 송시파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매증량의 주장에 동성파 뿐만 아니라 당·송 불분론자였던 황작자와 송시파의 핵심 인원인 하소기 등이 모두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들 중에서 주기(朱琦, 1801~1861)는 장목과 매우 가까운 관계였으며 동시에 동성파의 핵심 인물이기도 했다.³¹⁾ 주기는 어려서부터 동성파의 여황(呂璜, 1778~1838)에게서 고문을 배웠으며 북경에 들어간 뒤에는 공헌이의 주선으로 매증량의 문하에 들어갔는데 나중에 동성파 고문가의 ‘영서오대가(嶺西五大家)’에 들어가는 등 동성파 고문의 대표적 작가의 한 명이 되었다.³²⁾

『한객시존』에는 그가 함풍 6년(1857)과 함풍 7년(1858)에 조선 문인들에게 쓴 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 『조선의 오역매가 경성에 와서 이우선의 소식을 얻고 부치다(朝鮮吳亦梅至都, 得李藕船消息却寄)』는 동성파 특유의 특징이 매우 잘 드러나는 시이다. 이 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소개한 바 있지만 주기의 시풍을 살펴보기 위해 앞부분만 인용해 보기로 한다.³³⁾

老狂得酒猶磊磊 늙은 狂客 술 마시면 더욱더 제멋대로니
豈有詩名動海外 어찌 명성이 해외에 알려졌을까?
忽驚遠客相問訊 멀리 온 나그네 소식 묻자 홀연히 놀라서
凍筆槎枒走光怪 언 붓으로 들쭉날쭉 휘갈겨 대네.
世事滄桑多變幻 세상일 상전벽해와 같이 변화가 무상한데
且喜故人尙健在 옛 친구 건재하다는 소식에 일단 기쁘구나.
閉門讀書無一事 문 닫고 책만 읽으니 한 가지 일도 없어
寂寂車馬絕塵外 적막하여 車馬 없는 속세 밖이네.

주기가 오경석을 만난 것은 정월이었다.³⁴⁾ 당시 주기는 이미 56세였으므로 스스로 늙은 광객이라 칭한 것이다. 앞의 네 구에서는 자신의 성격과 노

31) 주기와 조선 문인들의 교류에 대해서는 이춘희, 『晚淸 桐城派 시인 朱琦와 朝鮮 李尙迪의 詩的 대화』, 『한국학논집』 67, 2017, 325~355면 참조.

32) 이춘희, 앞의 글, 329~330면 참조.

33) 해당 시에 대해서는 이춘희, 앞의 글 336면 참조. 본고에서는 해당 논문의 번역을 참조하되 일부 고쳤다.

34) 이춘희, 앞의 글 335면 참조.

년의 생활, 뜻밖에 조선의 사신이 자신의 소식을 묻자 놀라는 정경이 매우 형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시는 매우 호탕한 것이 특징인데 첫 구 특히 ‘老狂’에서는 소식의 영향이 선명하게 감지된다.³⁵⁾ 한유를 배우고 소식을 참조할 것을 주장한 매증량의 시학 주장이 시에 드러난 것이다.

주기의 시는 앞의 두 구에서는 자신이 노년에 술에 취해 제멋대로 행동 하면서 해외에서 무슨 소식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3, 4 구에서는 조선 사신이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깜짝 놀라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매우 생동하게 그려냈다.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상황인 데다가 한 겨울의 찬 날씨에 붓까지 얼어 글씨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매우 해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어 5, 6구에서는 분위기의 변화가 감지된다. 세상의 풍운변화에 대한 감개를 금치 못하면서 “건강하게 잘 있다니 다행이구나”라고 안도하고 있는 것이다. 7, 8구에서는 분위기를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도연명의 시를 변용하여 문 닫고 책만 읽어 어지러운 속세의 소리를 멀리 한다고 하였다. 인용한 부분은 시의 절반 정도 분량이지만 이 부분만 보아도 이 시가 매우 다채로운 수법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또한 2구를 단위로 분위기가 급격하게 바뀌어 심경의 변화를 매우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래 주기의 시를 한 수 더 보기로 하자. 이 시의 제목은 『조선 이우선의 술그릇을 읊은 시권 뒤에 쓰다(書朝鮮李藕船酒器詩卷後)』인데 이는 다음 해인 합풍 7년에 쓴 것으로 역시 『한객시존』에 실려 있다.

李侯有酒器 이씨 제후에게는 술그릇이 있는데
 笑說似圖樗 웃으면서 마치 그림잔 같다고 하였지.
 聲小出春蚓 소리는 작아 봄지렁이 나오는듯
 肩高病夏蛙 어깨는 높아 여름철 밭에서 일하는 듯.
 習池風未遠 습가지(習家池)의 풍격이 멀지 않으니
 豪待理難齊 호방하게 대하는 이치는 똑같기 어렵네.
 莫問獨醒叟 늙은이 혼자 깨어있으라고 하지 말게
 沉沉醉若泥 깊이 취해서 곤죽이 될 것이니.

35) 소식은 외직에 있을 때 좌천되어 있을 때 늘 ‘疏狂’, ‘狂’, ‘老狂’으로 자신을 불렀다. 蘇軾, 「坐上賦戴花得天字」, “清明初過酒闌珊, 折得奇葩晚更妍. 春色豈關吾輩事, 老狂聊作坐中先.”

이 시의 첫 구인 “이씨 제후에게는 술그릇이 있는데”는 두보의 시 『이십이백과 더불어 범십 거사를 찾다(與李十二白同尋範十隱居)』를 변용한 것이다. 이 시의 첫 구는 “이씨 제후에게는 좋은 시구가 있어(李侯有佳句)”이다. 이상적의 성이 이씨이기에 그를 이백에 비긴 것인데, 술을 잘 마시고 시를 잘 짓는다는 이상적의 재능을 높게 평가해 준 것이다. 3구는 왕희지가 소자운(蕭子雲)의 글씨가 장부의 기개가 없어서 봄지렁이 같다고 한 말을 가져왔고 4구는 『맹자(孟子)』 『등문공 하(滕文公下)』에 나오는, “어깨를 움크리고 아첨하며 웃는 것은 여름에 밭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이다(脅肩諂笑, 病於夏畦)”라고 한 증자(曾子)의 말을 가져왔다. 이어 또 나오는 습지(習池)는 『세설신어(世說新語)』에 나오는 진고인데, 진(晉)나라 산간(山簡)이 양양(襄陽)에 있을 적에 항상 습가지(習家池)에 찾아가 만취하였다고 한다. 이 중에서 3구와 4구의 전고는 기발함과 난삽함의 경계에 있는, 혹은 두 가지를 결합 전고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학인지시(學人之詩)의 전형적인 특징을 매우 잘 보여준다.

특히 이 시의 마지막 구는 문장을 시로 삼는 송시풍의 이문위시(以文爲詩)의 특징도 잘 보여주는데, 취해서 곤죽이 되다(醉若泥)라는 말도 그렇지 만 앞에 깊이(沉沉)이라는 말이 들어가 더욱 구어적 색채가 짙다.

동성파의 실질적 창시자인 요내의 시의 특징이 양강(陽剛)의 미, 이문위시(以文爲詩), 학인의 시(學人之詩)로 평가되고 매증량은 요내를 배우되 형상적인 묘사에 매우 능했다고 평가하되는데³⁶⁾ 주기의 시에서도 동성파의 이런 특징이 매우 잘 드러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시적 경향이 당시의 일부 조선문인들의 작품에서도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용숙(李容肅) 등 6인의 역관의 시를 엮은 『해객시초(海客詩鈔)』에는 이런 시구가 적지 않게 보인다. 이용숙의 시에 나타난 “길상과 복록을 써서 봄을 맞이하니(吉祥福鹿寫迎春)”³⁷⁾, “늙은 말이 돌아가는 길 잘 알아(老馬諳歸路)”³⁸⁾ 등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이런 시구들은 비교적 구어체에 가깝거나 또는 비교적 비속하게 느껴지는 문장을 시구로 활

36) 劉世南, 『淸詩流派史』, 人民文學出版社, 2012, 357~370면.

37) 李容肅, 『元朝』, 『한객시존』 25면.

38) 李容肅, 『發玉河館』, 『한객시존』 29면.

용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아마 당시 청나라 문인들의 영향과도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본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도광·함풍 연간에 조선 문인들과 교류했던 북경의 문인들이 대부분 송시과와 동성과의 자장 안에 있다고 보고 그들에 관한 대략적인 정보를 종합한 뒤 그들이 어떤 인맥의 끈으로 엮여 있는지, 어떤 시적, 학문적 경향을 공유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우선 송시과와 가장 가깝게 있었던 장목에 주목하여 그의 생애와 학술적 경향을 살펴보고 시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장목은 완원을 숭배하였기에 김정희에게 깊은 동질감을 가졌고 깊이 있는 학문적 교류를 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김정희의 두 제자인 이상적과 이시선에게 시를 지어 주었다. 장목은 고증학을 경세의 학문으로 바꿀 방법을 모색한 학자로, 고염무 사당의 설립, 변방의 지리지의 저술 등은 그의 이런 고민과 경향을 매우 잘 보여준다. 그의 저서는 조선에 전해져 일부 문인들에게 읽혔으며, 고염무 사당 참배활동은 많은 조선인들에게 알려졌다. 이로부터 그의 학문적 경향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의 시는 전형적인 학자의 시로, 매우 특징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이런 시적 경향도 조선의 문단에 일정한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어 본고에서는 동성과의 핵심 인물이었던 주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기의 생애와 조선 문인과의 교류는 선행연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밝혀졌으므로 본고에서는 주기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생략하고 조선 문인들에게 써 준 시 시 두 수만 가져와 그 시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주기의 시는 매우 수준 높은 동성파 시의 특징을 보이는데, 본고에서 인용한 시는 특히 형상적인 묘사, 구어체의 사용 등에서 독특한 면모를 보였다. 이런 특징은 중국을 여러 번 방문하였던 일부 역관의 시에서도 일부 드러나는데 이는 청대 문학에 영향을 받아서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한으로 『한객시존』에 수록된 청나라 문인들의 작품 전반을 고찰하지는 못하였고 다만 송시파와 동성파의 대표적 작가의 시 몇 수를 살펴보는 데만 그쳤다. 조선 문인과 교류한 청나라 문인들의 작품을 더욱 폭넓게 살펴보고 아울러 청나라 문인들과 활발하게 교류하였던 조선 문인들의 문학적 경향을 검토하는 것은 추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1. 자료

- 『海客詩鈔』, 하버드대 연칭도서관 소장 필사본.
(淸)董文煥, 李豫·崔永禧 輯校, 『韓客詩存』,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6.
徐慶淳, 『夢經堂日史』.
曾國藩, 『歐陽生文集序』, 『曾國藩詩文集』,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2. 단행본

- 김명호,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2008.
李詳, 『藥裏慵談』,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2000.
劉世南, 『淸詩流派史』, 人民文學出版社, 2012.
王英志, 『清代唐宋詩之爭流變史』, 人民文學出版社, 2012.

3. 논문

- 김호, 『朝鮮刊本 《新編算學啓蒙》의 中國 傳播와 影響』, 『중국문학연구』 58, 한국중문학회, 2015, 1~27면.
김홍매, 『晚淸 문인 황작자黃爵滋와 조선 연행사』,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2016, 249~268면.
김홍매·박향란, 『晚淸 문인 孔憲彝의 ‘韓齋’와 한중 문인들의 문화 교류 - 咸豐 7년의 모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7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8, 307~325면.
이춘희, 『道咸 연간의 대가 祁雋藻와 조선 문인 李尙迪의 교류』, 『한국한문학연구』 57, 한국한문학회, 2015, 343~375면.
_____, 『晚淸 桐城派 시인 朱琦 와 朝鮮 李尙迪의 詩의 대화』, 『한국학논집』 67,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7, 325~355면.
임영길, 『淸 문인 黃爵滋와 朝鮮 문인의 교류 - 『仙屏書屋初集年記』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4, 한국한문학회, 2016, 333~369면.
李奕蕾, 『張穆交游及其書法研究』, 山西大學 석사학위논문, 2020.
呂文利, 『1839年: 張穆學術人生轉折若幹問題』, 『淸史研究』, 中國人民大學, 2007(1), 75~85면.
周芳, 『道鹹年間的台閣詩人程恩澤和祁雋藻對詩壇的影響』, 산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Qing Writers Whom Joseon Envoys Met
in the Year of Daoguang and Xiangfeng
- Focusing on the Data from 'A Collection of Poetry
by the Joseon People(韓客詩存)' -

Jin, Hong-mei

Dao Guang(道光, 1821~1850) and Xian Feng(咸豐, 1851~1861) Period of the Qing Dynasty was a time when they faced internal and external conditions. During this period, evidential learning still held a leading position in the Qing Dynasty, but some writers began with a sense of crisis and promoted a useful learning for running a country, which drew support from the court and a favorable response from literature. On the other hand, Song School of Poetry had the greatest influence in literature at the time, and Song School of Poetry's influence grew even greater with the addition of Tongchengpai writers with similar poetic tendencies.

In this paper, the connections, exchanges, and tendencies of Qing writers who directly interacted with Joseon envoys during this period were examined based on changes in the Qing Dynasty's academic style and literature. It is noteworthy that many of the writers who exchanged with Joseon envoys during this period were from Jinsa, so they had a high level of literature. In addition, it is presumed that many writers had a Suffering consciousness of friendship as they directly or indirectly participated in the Opium War or Taiping Heavenly Kingdom War.

In terms of literary trends, it can be divided into Song School of Poetry and Tongchengpai, and in this paper, Zhang mu (1805-1849), who was a historian and had a very close relationship with the key figures of Song Si-pa, examined his academic trends, characteristics of poetry, and exchanges with Koreans. As for the Tongchengpai faction, the characteristics of poetry creation and friendship with Joseon writers were examined, focusing on the Zhu qi (朱琦, 1801~1861). Their academic trends and poetry style are thought to have had a certain influence on Joseon's writers.

Keywords: Dao Guang(道光), Xian Feng(咸豐), Song School of Poetry(宋詩派), Tongchengpai(桐城派), '*A Collection of Poetry by the Joseon People*(韓客詩存)', Zhang Mu(張穆), Zhu Qi(朱琦)

접수일자: 2023. 9. 30.

심사기간: 2023. 10. 1.~2022. 11. 10.

게재결정: 2023. 11. 10.

